

동명대 건축학과, 한국농촌건축대전 장려상 등 수상

[황두열]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최근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서 장려상 등을 받았다.

동명대는 '미래(美來)농촌, 유해시설 정비 후 주택단지 조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동명대 건축학과 4학년 장치원, 김동혁 학생 등이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장치원·김동혁 학생은 오랫동안 방치돼온 축사를 재정비해 마을주민에게 치유의 숲 공간을 제시했다.

또 청년 세대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농·림·축·수산물 생산·가공·유통단계에서 ICT, AI를 접목한 스마트팜 프로그램·공간을 제시해 장려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 2학년 5팀, 3학년 1팀, 4학년 4팀 등은 입선에 선정됐다.



장치원 김동혁 학생의 건축계획안.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지역 건축문화 향상으로 지역 활성화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청년 세대들의 영농 진입 증가와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네트워크 형성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생활 SOC 시설을 유치할 프로그램·건축디자인을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동명대 건축학과, 한국농촌건축대전 장려 포함 총 27명 수상

[김해찬]

[베리타스알파=김해찬 기자] 동명대 건축학과는 '美(아름다운)來(돌아오는)농촌, 유해시설 정비 후 주택단지 조성'을 주제로 한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서 최근 전체 55개 수상팀 중 10팀(27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축학과 4학년 장치원, 김동혁 학생이 장려상(상금 100만원)으로 선정됐다. 두 학생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축사를 재정비하여 마을주민에게 치유의 숲 공간을 제시했고, 청년세대에게는 기후이변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재배로 농/림/축/수산물 생산가공유통단계에서 ICT, AI를 접목해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 지속성장가능할 프로그램을 건축공간으로 제시했다.

또 ▲2학년 5팀(박준희 송준민 김세영 박찬수 이승민 이용현 김서영 이수혁 최어진 박동원 최진영 이상욱 이석준 김성준 이성진) ▲3학년 1팀(구주경 오채학 이도현) ▲4학년 4팀(정승필 변희선 박준홍 김민석 김지혜 성민규 한희주) 등은 입선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달 26일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영농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생활SOC 시설을 유치할 프로그램과 건축디자인을 요구했다.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지역 건축 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위해 시행중인 공모전이다.



동명대 건축학과는 '美(아름다운)來(돌아오는)농촌, 유해시설 정비 후 주택단지 조성'을 주제로 한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서 최근 전체 55개 수상팀 중 10팀(27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동명대 제공

동명대 건축학과, 한국농촌건축대전 장려 포함 총 27명 수상

[이현정]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 건축학과는 '美(아름다운)來(돌아오는)농촌, 유해시설 정비 후 주택단지 조성'을 주제로 한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서 최근 전체 55개 수상팀 중 10팀(27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축학과 4학년 장치원, 김동혁 학생이 장려상(상금 100만원)으로 선정됐다. 두 학생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축사를 재정비하여 마을주민에게 치유의 숲 공간을 제시하였고, 청년세대에게는 기후이변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재배로 농·림·축·수산물 생산·가공·유통단계에서 ICT, AI를 접목해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 지속성장 가능할 프로그램을 건축공간으로 제시하였다.

또 ▲2학년 5팀(박준희 송준민 김세영 박찬수 이승민 이용현 김서영 이수혁 최어진 박동원 최진영 이상욱 이석준 김성준 이성진) ▲3학년 1팀(구주경 오재학 이도현) ▲4학년 4팀(정승필 변희선 박준홍 김민석 김지혜 성민규 한희주) 등은 입선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9월 26일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영농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생활SOC 시설을 유지할 프로그램과 건축디자인을 요구했다.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지역 건축 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위해 시행중인 공모전이다.

